

약력 (Biography)

독일 함부르크 출신 미디어 아티스트 올리버 그림(Oliver Griem)은 1995년부터 한국 서울에 거주하며 활동하고 있다. 그는 독일 함부르크 조형예술대학교에서 순수미술을, 쾰른 미디어예술대학교에서 미디어 디자인을 전공했다. 그러나 그의 예술적 출발점은 음악이었다. 본래 음악가를 꿈꾸었으나 우연한 계기로 영상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음악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간을 극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상이라는 매체에 매료되었다. 이러한 음악적 배경은 그의 작업 전반에서 시간적·공간적 반복(repetition)을 구조적이자 주제적 장치로 다루는 방식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과의 인연은 1995년 다큐멘터리 「보통 사람들 (Parallel Worlds)」에서 시작되었다. 이 작품은 이방인의 시선으로 개별적인 한국인들 각각의 일상을 관찰한 것이었다. 그러나 30여 년간 한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통해 그의 시선은 점차 내부자적 관점으로 옮겨갔으며, 이는 「Guided Travel」(2018), 「Royal Blue Estate」(2010), 「Tomorrow City」(2009) 등의 작품에서 잘 드러난다. 한국의 사회적 갈등, 인공적인 환경과 자연 환경, 일상의 질감 등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흐르는 소재이다.

그의 작품안에서 또 하나의 주요 테마는 반복과 순환을 통해 지각되는 시간과 공간이다. 초기작 「Selfportrait」(1999), 「Hello Goodbye」(1998)부터, 그 이후 지속되는 360도 비디오 작업과 설치 작업에서 반복적 구조를 통해 관람자의 시간과 장소에 대한 감각을 늘리거나 뒤흔든다. 그가 360도 비디오에 매료된 것은 일반적인 사각프레임을 가진 영상과 달리 고정된 프레임의 독재로부터 관람자를 해방시키고,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관람자 스스로에게 맡긴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가상현실(VR)로 이어졌으며, 「Divine Mercy VR」(2020)에서 관람자는 1:35로 축소된 디오라마 속을 탐험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은 보통 다양한 매체에 대한 집요한 접근으로 시작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한 결과이다. 외부 프로그래머나 기술 전문가를 고용할 예산이 없는 그는 스스로 필요한 다양한 도구를 익혀왔다. Max/MSP/Jitter 나 C#을 이용한 인터랙티브 프로그래밍을 비롯해 3D프린팅, 360도 촬영기법과 영상설치에 대한 연구, VR과 AI 까지 다양한 동시대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직접 매체를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접근 방식 덕분에 자유롭게 다매체적 작업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었다.

작업 아이디어는 종종 매체의 표현적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자라나는데, 최근 인공지능(AI)을 도구이자 주제로 다루게 된 것 역시 이러한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Games 1.1」(2013), 「Act 11 Scene 4」(2015), 「Composition for Moving Lights 3」(2011) 등 장소 특정적 작업에서는 사운드, 영상, 빛, 공간을 하나의 시간적 드라마투르기 안에 엮어내며 비언어적 스토리텔링의 한 형식을 구축한다. 주목할 점은 그의 작업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향하는 단선적 발전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Divine Mercy VR」의 기반이 된 디오라마 제작이나 모형 작업과 같은 오래된 기법들은 여전히 디지털·컴퓨터이셔널 방법론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의 작업에 공존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작업의 테마들은 대부분 의도적인 메시지를 갖는다고보다 우연한 일상적 관찰에서 비롯된다. 예를 들어 3채널 비디오 설치 「below waterline」(2025)은 그가 자주 지나다니는 서울 홍제천의 숨겨진 수중 세계에 대한 소소한 호기심에서 출발했다. 빛과 소리, 공간과 이미지를 결합하여 세계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관람자에게 감각적 경험으로 전달하고자한 작업이다.

다수의 개인전과 광주 ACC - 지구생존가이드: 포스트 휴먼 (2022),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한국비디오아트 7080 시간이미지장치 (2020),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 메이커시티 커넥티드시티 (2017), 창원시 경남도립미술관 - peace voice nice (2015), 서울시립미술관 - 유니버설 스튜디오 서울(2014) 등 유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http://www.fischkalb.com>에 작업이 아카이브되어 있으며 현재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부교수로 재직중이다.

curriculum vitae

올리버 그림 Oliver Griem

mailto: fischkalb@gmail.com

홈페이지 <http://www.fischkalb.com>

학력

1984 - 1992 Hochschule für bildende Künste Hamburg, 순수미술 전공 - 독일 함부르크

1992 - 1995 Academy of Media Arts Cologne, 미디어 디자인 전공 - 독일 쾰른

경력

2009 부터 현재까지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 부교수

2006 - 2008 KGIT 디지털이미지랩 소장

2007 - 2008 연세대학교, 겸임교수

2002 - 2006 홍익대학교, 디지털미디어디자인과, 조교수

2000 - 2002 홍익대학교, 영상디자인과, 전임강사

1998 - 2000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1998 - 2000 청강문화산업대학, 멀티미디어과/게임과, 강사

1997 - 2001 계원예술대학교, 영상디자인과/애니메이션과, 강사

1995 - 1997 특수효과 SFX 디자이너, CGI(주), 서울

1992 - 1995 프리랜서 영상편집감독, 쾰른, 독일

1990 - 1992 영상편집감독 DM Film & TV Production, 함부르크, 독일

개인전

2025, Flow States - audiovisual blobs, 플레이스막3, 서울

2013, Games ver 1.1, 0 Gallery, 유중아트센터 초대전, 서울

2013, Games,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2012, looping seoul, 아트센터 나비 - 코모, 서울

2010, Royal Blue Real Estate (로얄블루 부동산),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2005, rote Lichter in der Ferne (멀리 보이는 붉은 빛), 숲 갤러리, 서울

1998, Lied an die Freude (기쁨의 노래), 주한 독일 문화원, 서울

1997, 올리버 그림 개인전, 뮤지움 살, 서울

그룹전 / 영상상영 / 공동작업

2025, Atlanta Immersion, AI Film & Media Festival in Atlanta

2025, RetroQuito'25, Media Art Screening, Quito

2024, Vacations in the subconscious, 아테네 디지털아트 페스티벌

2023, 디오니소스 로봇, 경기시나위 오케스트라, 무대영상, LG아트센터 서울

2022, 지구생존가이드: 포스트휴먼 2022,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1, Deep in Virtuality:가상에 빠지다, eKosma Gallery, 서울

2021, 허허벌판표류기 - VR,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문화재단

2021, Rainbow, Uniting Colors, 중앙대학교, 서울

2021, Currents New Media - Virtual, 산타페, 미국

2021, Alone Together: Art from Home, eKosma Gallery, 서울

2020, Am I here?,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20, 한국비디오아트 7080 시간이미지장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2019, ISEA Lux Etearna, 광주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8, Wonder City, 세화미술관, 서울

2017, Aproximadamente 800 cm3 de PLA, Red Bull Station, 상파울로

2017, 메이커시티 - 커넥티드시티, 중림동 창고 갤러리,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

2017, Seoul Sculpture Festa,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17, Taehwagang Eco Sculpture Festival, 울산

2016, ACT Festival 2016,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16, 창원 조각 비엔날레, 창원
 2015, 은밀하게 황홀하게, 빛에 대한 31가지 체험,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5, 용도변경 2045,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개관전, 서울
 2015, Seoul international improvisation dance festival, 아르코 소극장, 서울
 2015, peace voice nice, 경남도립미술관, 창원시
 2015, 밤:인시, 공연 미술감독, 문화역서울 284 RTO
 2015, 도시의 빛, 시민청 갤러리, 서울
 2014, 기괴한 도시 (김현진 연출), 무대영상, 문화역 서울 284, 서울
 2014, 빔 스페이스 페스티벌 실험, 한가람 미술관, 서울
 2014, Universal Studios Seoul,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4, 3D printing & art, 사비나 미술관, 서울
 2013, Kunstdoc yearly exhibition, 갤러리 쿤스트독, 서울
 2012, 오산 미디어아트의 모험, 문화공장오산(오산시립미술관), 오산
 2012, 위대한 유산: 공동의 천, 수원천 꿈길 수원 화홍문에 프로젝션 매핑 설치, 수원
 2012, 선셋장항페스티벌, VJing, 물양장부지, 장항
 2012, 뮤지컬 '부활, the golden days' (김진영 연출), 영상연출, 현대극장, 한전아트센터, 서울
 2012, Communication in the city, 대구예술발전소, 대구
 2012, 찰나가 부르는 소리 (윤동구 연출), 영상, 문화역서울 284, 서울
 2011, 자스민 광주 (손재오 연출), 무대영상, 빛고를시민문화관,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컨퍼런스센터, 광주, 에딘버러
 2011, 펜테질레아 (라빠울 연출), 무대영상, Fatzer Project, 남산아트센터, 서울
 2011, Welcome to media space,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10, 부산항 빛축제, 자갈치 시장, 부산
 2010, 매운소리알갱이, 모인아트스페이스, 서울
 2010,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진남 문화회관, 여수
 2010, Photo-Project - from Seoul, NewYork and Munich, 경북대학교, 대구
 2010, 한강 파노라마, 독섬 전망문화콤플렉스 자벌레, 독섬 서울
 2009, INDAF 인천 디지털 아트페스티벌, 송도 인천
 2009, MODAFE 레지던시 'Embracing the city of Seoul'
 2009, 이천도자기비엔날레, 곰방대 가마 조형물 바람 공간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이천
 2008, 주운 고아 (라빠울 연출), 영상, 예술의 전당 - 자유 소극장, 서울
 2008, 물을 찾아서 (윤동구 연출), 영상연출, 플랫폼서울 2004, 구 서울역사, 서울
 2008, 아트 인 대구 2008: 이미지의 반란, KT&G 별관창고, 대구
 2008, '주운 고아' 공연을 위한 열흘간의 워크샵과 쇼케이스, KGIT(한독산학협동단지), 서울
 2008, 청계천 음악회 '공감', 금난새의 오케스트라와 올리버 그림의 미디어 아트, 청계천 광장, 서울
 2008, DMC Contents fair, 사물놀이팀 청배와 협업 - VJing, DMC 누리꿈스퀘어, 서울
 2008, Media season in heyri, gallery touchart, 헤이리
 2008, 솔로파티 (전인정 안무, 연출), 영상, Tanzhaus NRW, 뒤셀도르프
 2008, 뮤지컬 '두번째 태양 (김진영 연출)' 영상연출, 현대극장, 서울, 뉴욕
 2007, 경기문화재단 무용레지던스 땅따먹기 프로젝트, 영상작가로 참여/ 다큐멘터리 제작, 성남아트센터, 성남
 2007, 한국실험예술제, KOPAS, 서울
 2007, Animamix Biennial, MoCA Shanghai, 상하이
 2007, video_dumbo, Gair Building Gallery, 뉴욕
 2007 어린이지식문화센터 에듀컬처 콘텐츠 시범프로젝트 기획개발 '도시 속의 자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2007, Chemical Art 3, 사간 갤러리, 서울
 2006, 신도시, 버지니아 울프를 만나다, 서울여성프라자, 서울
 2006, Colours of Narrative, 갤러리 아트사이드, 서울
 2005, 장애인영화제 특별전, 스칼라극장, 서울
 2005, 대구 국제 뉴미디어아트 페스티벌,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구
 2005, electroscape, Zendai museum, 상하이
 2005, Imymemine, media-art-party 연출, 클럽 몽환, 서울
 2005, 여름예찬 백자풍경, 세종문화회관, 서울
 2005, 기초조형학회 정기전, 홍익대학교, 서울
 2005, World light Expo, 고양

2004, 울림과 만남 - 빛 예술전,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 대전
 2004, 기초조형학회 정기전, 국민대학교, 서울
 2004, 부유하는 섬, 안좌초등학교, 신안군 안좌도
 2004, My name is game, 인사아트센터, 서울
 2004, 충돌과 흐름전, 서대문 형무소, 서울
 2004, 기초조형학회 정기전, 울산대학교, 울산
 2003, 과천동물원 나비축제, 영상설치, 과천동물원 곤충관, 과천
 2003, 포천미술협회 정기전, 반월아트홀, 포천
 2003, 물 위를 걷는 사람들 - 청계천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3, 디스코텍 (김현진 안무, 연출), 영상연출, 문예진흥원예술극장대극장, 서울
 2003, 춘천국제마임페스티벌, 도깨비 난장, 춘천
 2003, 전주국제영화제 - Jiff mind, 전주
 2002, Tangible sound, 토탈미술관, 서울
 2002, 빨간 백조 (최상철 안무, 연출), 영상연출/음악,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서울
 2002, 매체의 재고, 이천아트센터, 이천
 2002, 'Mudia - korean Media Art & Shamanism', 연세대학교, 서울
 2001, 화성에서의 초대(김재영 안무, 연출), 영상연출, 대덕과학문화센터, 대덕
 2001, 청주 공예 비엔날레 - 자연의 숨결 - 특별코너, 청주 예술의 전당, 청주
 2001, 'Gametopia', Gallery Hello Art, 서울
 2000, 대전 미디어아트 2000,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2000, 제1회 서울국제행위예술제 (SIPAF), 퍼포먼스 연출, 인사동거리, 서울
 2000, 미디어시티서울 - 디지털 앨리스,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00, 화성인 (심철중 연출), 영상연출, 씨어터제로, 서울
 2000, 불임, 문예진흥원 미술회관, 서울
 2000, 까망 천사(최상철 안무, 연출), 영상연출, 예술의 전당, 서울
 2000, 가상공간의 샤머니즘, 한원미술관, 서울
 2000, Art Vision - City Vision, 디지털 조선 전광판 광화문일대, 서울
 1999, 뮤지움 살 전시, 서울
 1999, 멀티미디어 댄스퍼포먼스 '비몽사몽', 연출, 이천아트센터/계원예술대학, 안양, 이천
 1999, V.I.D.E.O exhibition - 제2회 쌈지 전시프로그램, 양평바탕골예술관, 양평
 1999, 1999년의 자화상, Gallery Fusion, 서울
 1999, 도시와 영상전 - 세기의 빛,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1999, 공장과 비디오, 이천아트센터, 이천
 1999, Show2000, 씨어터제로, 서울
 1999, 미메시스의 정원, 일민미술관, 서울
 1998, Noise(심철중 연출), 씨어터제로, 서울
 1998, Media in&out, 서남미술관, 서울
 1996, 제 1회 Q-Channel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서울
 1995, Tag+Nacht (낮과 밤), Handwerkskammer zu Köln, 쾰른, 독일
 1995, Ex-Machina(프레데릭 플라모, 파브리찌오 플레시 연출), 영상참여, 베니스 비엔날레, 유럽투어
 1995, Duisburger Filmwoche 뒤스부르크 필름주간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뒤스부르크, 독일

수상

2025, 서울국제AI영화제, Best AI Sound Design (합성된 에덴의 최면적 흐름)
 1996, 제 1회 Q-Channel 다큐멘터리 페스티벌 심사위원 특별상 (ParallelWorlds - Observations in South-Korea, 71'00")
 1991, 제 14회 동경 비디오 페스티벌 독일 특별상 (Abtanz, 9'59")
 1992, 제 15회 동경 비디오 페스티벌 독일 특별상 (Stationen, 10'35")